

외국어학습서를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복식관련 외래어 명칭에 관한 연구

김은정* · 조우현⁺ · 강순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전공 강사* · 성균관대 의상학과 교수⁺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전공 교수**

Naturalized Words of Clothing Terms Reflected in the Foreign Language Study Books of the Joseon Dynasty

Eun-Jung Kim* · Woo-Hyun Cho⁺ · Soon-Che Kang**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투고일: 2009. 3. 25, 심사(수정)일: 2009. 4. 13, 게재확정일: 2009. 5. 1)

ABSTRACT

Naturalized words of clothing terms in Joseon Dynasty could be found on the foreign language study books such as Chinese language study books; 『譯語類解Yeokeoyuhac』, 『譯語類解補編Yeokeoyuhac-supplementary book』, and 『華語類抄Hwaeyucho』, Manchu language study book; 『同文類解Dongmunyuhac』, Mongolian language study books; 『蒙語類解Mongeyuhac』, and 『蒙語類解補編 Mongeyuhac-supplementary book』, Japanese language study books; 『倭語類解Oaeoyuhac』, and 『和語類解Hwaeyuhac』, and the study books of over two kinds of foreign language; 『方言類釋 Bangeonyuseok』, and 『漢清文鑑Hanchungmungam』. This study focused on the name that was related with headgear, socks and clothing from those foreign language study books.

The name which was originated in Chinese language is *Gwan*, *Yanggwan*, *Dugeon*, *Samo*, *Bokdu*, *Jungja*, *Okjam*, *Gwanja*, *Hwa*, *Johwa*, *Unhye*, *Jobok*, *Danlyeong*, *Wonlyeong*, *Changyi*, *Dunja*, *Hosu*, *Dansam*, *Dopo*, *Bigye*, *Peok*, *Yodae*, and *Pumdae*. The name which was originated in Manchu language is *Gamto*, *Nyeolku*, *Dalgi*, *kulimae*, and *Mahulae*. The name which was originated in Mongolian language is *Tyeolic*, and *Dugeule*. There are two kinds of names that have been used continuously during the whole Joseon Dynasty. The first ones borrowed just name, for example, *Gwan*, *Dugeon*, *Mahulae*, *Okjam*, *Hwa*, *Dansam*, *Changyi*, *kulimae*, and *Yodae*. The second ones loaned the name and object, for example, *Yanggwan*, *Samo*, *Bokdu*, *Gamto*, *Jungja*, *Gwanja*, *Jobok*, *Dalgi*, *Danlyeong*, *Wonlyeong*, *Dopo*, *Tyeolic*, *Peok*, and *Pumdae*.

It was observed that among Korean names that have been used from the Joseon Dynasty, *Unhye*, *Dugeule*, and *Hosu* were used as broader meaning in the Joseon Dynasty. It was names that had not used during the whole Joseon Dynasty were *Johwa*, *Nyeolku*, and *Bigye*.

Key words: naturalized words(외래어), clothing terms(의복명칭), foreign language study books(외국어학습서), Joseon dynasty(조선왕조)

I. 서론

복식에 관련된 명칭을 보면 우리의 생활 안에서 자생되었거나 오랜 역사 동안 이웃 국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유입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복식명칭 중에는 '옷, 신, 갓, 치마, 바지' 등의 고유어가 있는 반면에 '관, 복두, 조복, 화, 철릭, 더그레' 등과 같이 한자어를 포함한 외래어도 있다. 이 중에서 외래어 복식명칭만을 모아 원류와 쓰임새를 분석해 보면, 그 복식이 어떠한 민족의 복식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복식 안에서 동화(同化)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선시대 외래어 복식명칭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외래어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어학습서는 주로 사역원에서 한어·만주어·몽고어·일본어 역관과 역생의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마련한 책인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첩해신어(捷解新語)』, 『첩해몽어(捷解蒙語)』 등과 같은 이야기 형식의 학습서와 『역어유해(譯語類解)』, 『몽어유해(蒙語類解)』, 『동문유해(同文類解)』와 같은 어휘를 분류해 놓은 학습서로 분류된다. 특히 어휘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 학습서는 각 낱말을 천문(天文)·시령(時令)·지리(地理)·인륜(人倫)·복식(服飾)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한자(漢字) 표제어 낱말 아래 국문으로 표기하고, 각 나라의 발음을 국문으로 표기하고 있어 외래어를 연구하는 복식사 분야와 국어학 분야에서

중요한 참고문헌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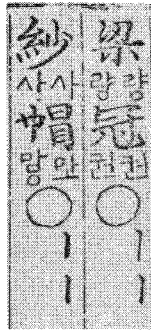
복식사 분야의 외래어 연구¹⁾는 복식용어 중에서 만주어, 몽고어와 관련된 복식용어들을 고찰하는 내용이 주였고, 국어학 분야의 외래어 연구²⁾는 조선시대에 사용된 어휘들 중 외래어 어휘들을 밝히고 각 어휘들의 어원을 분석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에서는 조선시대 외래어 복식명칭들의 어원, 유입된 시기, 유입 후 우리복식에서의 사용례 등 총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외국어학습서 중 서적의 특징이 유사한 10종의 어휘집인 『역어유해(譯語類解)』³⁾, 『역어유해보편(譯語類解補編)』⁴⁾, 『화어유초(華語類抄)』⁵⁾, 『동문유해(同文類解)』⁶⁾, 『몽어유해(蒙語類解)』⁷⁾, 『몽어유해보편(蒙語類解補編)』⁸⁾, 『왜어유해(倭語類解)』⁹⁾, 『화어유해(和語類解)』¹⁰⁾, 『방언류석(方言類釋)』¹¹⁾, 『한청문감(漢淸文鑑)』¹²⁾의 복식(服飾) 또는 의식부(衣飾部)에 기록된 쓰개, 족의, 의복과 관련된 외래어 명칭들을 어원별로 분류하고, 조선시대 외래어 복식명칭의 특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지속적으로 사용된 명칭과 일시적으로 사용된 명칭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II. 조선시대 외래어 복식 명칭의 분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요 자료는 <표 1>과 같다. 이들 외국어학습서들은 출간연도는 서로 다르나, 한자

<표 1> 조선시대 외국어 어휘집

외래어 종류	서명	저자	발행 연도	유별(類別)	복식 관련 항 명칭
한어	譯語類解	신이행 외 / 사역원	1690년	62부류	服飾
	譯語類解補	김홍철	1775년	62부류	服飾
	華語類抄	편자미상	19세기말	63부류	服飾
몽어	蒙語類解	방효인	1790년	54부류	服飾
	蒙語類解補	방효인	1790년	48부류	服飾
왜어	倭語類解	미상	1781~1782년으로 추정	53부류	服飾
	和語類解	박이원(왜어유해를 필사함)	1837년	56부류	服飾
만주어	同文類解	현문항	1748년	55부류	服飾
한어, 몽어, 왜어, 만주어	方言類釋	홍명복	1778년	87부류	服飾
한어, 만주어	漢淸文鑑	이담 김진하	1779년경	87부류	衣飾部



<그림 1> 『역어유해』양관, 사모



<그림 2> 『동문유해』둔즈

<표 2> 한어에서 차용한 명칭

명칭	표제어 명칭(한어음)	출처
쓰개	관	冠(권) 『동문유해(1748)』복식(服飾), p.115, 『몽어유해(1790)』복식(服飾), p.86
	양관	梁冠(량권)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87
	사모	紗帽(사만)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87, 『화어류초(19세기말)』복식(服飾), p.52 『방언유식(1778)』복식류(服飾類), p.129
	복두	幘頭(부루)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87
	두건	頭巾(투긴)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87
	딩즈	頂子(딩즈)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88, 『화어류초(19세기말)』복식(服飾), p.52
족의	옥잠	玉簪(유존)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89, 『화어류초(19세기말)』복식(服飾), p.53
	조화	朝靴(차췌) 『화어류초(19세기말)』복식(服飾), p.54
	패옥	珮玉(빅유)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89
의복	품띠	品帶(핀대)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91, 『동문유해(1748)』복식(服飾), p.120
	단령	團領(튀링)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90, 『왜어유해(1781~??)』복식(服飾), p.99
	원령	圓領(원링) 『화어류초(19세기말)』복식(服飾), p.53
	조복	朝服(차부)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89, 『화어류초(19세기말)』복식(服飾), p.53 『동문유해(1748)』복식(服飾), p.115, 『몽어유해(1790)』복식(服飾), p.86
	도포	道袍(단판)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90
	창의	擎衣(창이)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90, 『왜어유해(1781~??)』복식(服飾), p.99
	단삼	單衫(단산)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90
	요대	腰帶(야대) 『화어류초(19세기말)』복식(服飾), p.54

표제어에 대한 우리말 대역어와 한어, 몽고어, 만주어, 왜어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본 장에서는 외국어학습서에 기록된 복식관련항목을 중심으로 이들 한자표제어에 대한 우리말 대역어가 한어, 만주어, 몽고어, 일본어 발음을 차용한 것들을 외래어 복식명칭¹³⁾으로 보고 이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한어에서 차용한 명칭

한어 학습서에서 보면 두 종류의 외래어 명칭이

있다.

하나는 <그림 1>¹⁴⁾과 같이 우리말 대역어의 위치에 한자어의 음절 수요에 해당하는 짧은 선으로 대치하고 있는 명칭들이다. 이들 명칭은 외국어학습서의 편찬자들에게 표제어에 대한 한어 발음표기가 그대로 우리말에 사용된다고 생각되었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며, 이들 명칭들은 조선시대 보다 이른 시기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한자어로서 외래어 명칭으로 볼 수 있다.¹⁵⁾ 이에 해당되는 명칭들은 총 17개의 명칭으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 양권, 사모,

<표 3> 한어에서 차용한 명칭2

명칭	표제어 명칭(한어음)	출처
쓰개	관즈 圈子(한어 : 켄즈)	『화어류초(19세기말)』복식(服飾), p.52, 『방언유석(1778)』복식류(服飾類), p.130
족의	휘 靴(한어 : 휘)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93
	운혀 鞞鞋(한어 : 운혜)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94
의복	호수 鶴袖(한어 : 허슈)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89
	둔즈 頓子(한어 : 둔즈)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91
	비게옷 比甲(한어 : 비가)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90

<표 4> 만주어에서 차용한 명칭

명칭	표제어와 각 나라별 발음	출처
쓰개	마흐래 冠(만주어:마가라,마흐래)	『동문유해(1748)』, 복식(服飾), p.115
	감토 帽子(만주어 : 감투)	『동문유해(1748)』, 복식(服飾), p.115
	널쿠 斗篷(만주어 : 너러우)	『동문유해(1748)』, 복식(服飾), p.116
의복	돌오기 鞞子鞋(만주어:뻬타머 굴하/조선어:드로기)	『한청문감(1779경)』, 화말류(靴襪類), p. 1371
	쿠리매 褂子(만주어 : 꾸리매)	『동문유해(1748)』, 복식(服飾), p.116

<표 5> 몽고어에서 차용한 명칭

명칭	표제어와 각 나라별 발음	출처
털릭	몽고어 : 'terlig'	『역어유해(1690)』복식(服飾), p.90, 帖裡(한어:터리/조선어:털릭), 『방언유석(1778)』복식류(服飾類), p.130, 帖裡(한어:터리/조선어:털릭).
더그레	몽고어 : 'degelei'	『방언유석(1778)』, p.130, 搭護(한어 : 다후/조선어:더그레), 『몽어유해보(1790)』服飾補, p.243, 齊肩褂(몽고어 : 더그레/조선어:갓동옷).

복두, 두건, 정자, 옥잠, 조휘, 패옥, 품대, 단령, 원령, 조복, 도포, 창의, 단삼, 요대'이다. 이 명칭들은 대부분이 남자의 관복과 관련된 복식명칭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선시대 남자의 관복이 외래 복식의 영향을 받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그림 2>¹⁶⁾와 같이 한자 표제어에 대한 한어 발음과 우리말 발음표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명칭들로, <표 3>과 같이 '관즈, 휘, 운혀, 호수, 둔즈, 비게' 등 6개의 명칭이다. 이 중 둔즈는 『역어유해(1690)』보다 후에 간행된 만주어 학습서 『동문유해(1748)』에는 한자 표제어 '皮朶屯'에 해당되는 우리말 대역어 '둔즈'로 표기되어 있어 『역어유해(1690)』가 간행된 이후에 우리말 속에 동화되어 사용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 한어에서 유래된 명칭은 모두 23개였으며, 쓰개와 의복관련 명칭이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2. 만주어에서 차용한 명칭

만주어에서 차용한 명칭은 '마흐래¹⁷⁾, 감토, 널쿠, 달오기, 쿠리매¹⁸⁾' 등 5개의 명칭이며, <표 4>와 같다. 이 중 감토는 그 발음을 차용한 한자표기인 '坎頭'가 『고려사』¹⁹⁾에 기록되어 있어 만주어의 시어인 여진어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추정되고 있으며²⁰⁾, 조선시대 문헌에 '帽, 帽子, 小帽子, 小帽, 頂帽子, 氈帽, 羊毛帽'에 대응되는 한글명칭²¹⁾으로 사용되는 등 조선시대에는 우리 복식에 동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다로기[돌오기]는 여진어 만주어의 가죽신을 의미하는 명칭인데²²⁾, 『한청문감(1779경)』에는 '鞞子鞋'에 해당되는 우리말 언해로 표기되었고, 조선시대 한자로 된 문헌에는 '月呑只²³⁾', '多路岐²⁴⁾' 등 그 발음을 차용한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 『한청문감(1779경)』이 제작되기 이전에 우리복식에 동화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표 6〉 어원별, 품목별 외래어 복식 명칭의 분류

어원	외래어 복식명칭		
	쓰개	족의	의복
한어	관, 양관, 사모, 복두, 두건, 딩즈, 관즈, 옥잠	휘, 조휘, 운허	호슈, 패옥, 폼디, 요대, 단령, 원령, 조복, 도포, 창외, 단삼, 둔즈, 비계웃
만주어	마흐래, 감토	돌오기	널쿠, 쿠리매
몽고어			더그레, 털릭

3. 몽고어에서 차용한 명칭

몽고어에서 차용한 명칭은 ‘털릭, 더그레’ 등 의복과 관련된 명칭 2개였다. 한어 학습서인 『역어유해(1690)』에는 ‘帖裡’에 대응되는 우리말을 ‘털릭’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털릭은 몽고어 어휘인 ‘terlig’을 차용한 명칭²⁵⁾이다. 또한 몽고어 관련 어휘집에는 ‘齎肩褂’에 대한 몽고어 발음을 ‘더거레’로 표기하였는데, 우리말의 ‘더그레’는 ‘더거레 degelei²⁶⁾’를 차용한 것이다.

이상 조선시대 외국어학습서를 중심으로 본 외래어 명칭은 총 30개였으며, 어원별, 품목별로 분류해 보면 〈표 6〉과 같다. 이들 명칭들은 한어, 만주어, 몽고어에서 유래된 명칭들이었으며, 왜어(일본어)와 관련된 명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한어에서 유래된 명칭은 23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자가 우리문자의 기반이었고, 중국의 한족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만주어에서 유래된 명칭들은 여진어에서 비롯된 언어로서,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면 여진인들의 왕래가 확인되고, 특히 『세종실록』 8년의 기록²⁷⁾에서 보면 조선초기부터 야인들과의 통역을 위하여 사역원에 여진어 통역관을 배치하는 등의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초기 혹은 이전부터 접촉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²⁸⁾ 이외 몽고어에서 유래된 명칭들은 고려시대 몽고족과의 접촉을 통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식의 품목별로는 의복관련명칭이 16개, 쓰개 10개, 족의 4개의 순으로 의복관련된 외래어 명칭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Ⅲ. 조선시대 외래어 복식 명칭의 특징 분석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복식 명칭으로 쓰인 외래어

명칭들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우리나라 문헌에 처음 기록된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조선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명칭, 일시적으로 사용된 명칭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지속적으로 사용된 명칭

지속적으로 사용된 외래어 명칭들은 문헌의 기록을 중심으로 보면, 조선시대 이전의 문헌에 기록된 명칭과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명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명칭들의 특징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1) 조선시대 이전의 문헌에 기록된 외래어 복식 명칭

조선시대 이전의 문헌에 기록된 외래어 명칭들은 ‘관, 화, 두건, 감토, 양관, 사모, 복두, 단삼, 단령, 조복, 패옥, 폼디[대], 요대’ 등이며, 만주어에서 유래된 감토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어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주로 관복과 관련된 명칭이다. 이들 외래어 명칭들이 조선시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조선시대와 동시대에 해당되는 유입된 곳의 의미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표 7〉과 같다.

‘관, 화, 두건’은 모두 조선시대 이전에 사용된 명칭으로서, 관은 관례용 쓰개, 화는 신목이 긴 신, 두건은 머리를 감싸는 천으로 된 쓰개라는 넓은 의미에서는 조선시대나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중국의 명칭시대의 의미가 동일하나 구체적인 용도나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시대⁶⁵⁾와 중국 명, 청시대⁶⁶⁾의 관(冠)과 관련된 쓰개들을 비교해 보면 〈표 8〉과 같으며, 모두 의례적으로 사용된 쓰개임을 알 수 있다.

<표 7> 조선시대 이전에 문헌에 기록된 외래어 복식 명칭

명칭 (어원)	최초 문헌의 출처	조선시대의 의미	명·청시대의 의미
관 (한어)	『梁書』卷五十四 諸夷傳 百濟(629)	관복용. 상례용 쓰개의 총칭. 1600년대 이전에는 우리말 '갓갈'과 동의어임 ²⁹⁾ .	『釋名』에 “冠, 貴也。所以貴, 韜發也” ³⁰⁾ 라 하였고, ‘古代貴族男子所用的一種特殊頭飾 ³¹⁾ ’이라 하여 중국에서 관직자, 또는 귀족층 남자들이 사용한 쓰개.
복두 (한어)	『三國遺事』 元聖大王(785-798)	각이 지고 위가 평평한 관으로 사모와 같이 두 단으로 되었으며, 뒤쪽의 좌우에 각(脚)이 달림. 경국대전에는 공복으로 제정되었으나 점차 사라지고 국말까지 급제관복,胥吏, 악공, 악사 등이 사용함. ³²⁾	중국 명대의 복두는 羈臣服, 侍儀舍人是 展脚幘頭, 校尉는 交脚幘頭 등 착용자에 따라 각의 모양이 다르며 ³³⁾ , 청대에 만주족의 관복제도로 바뀌면서 사용되지 않음 ³⁴⁾ .
양관 (한어)	『高麗史』卷第72 志 第26 輿服一 冠服	고려말 유입되어 사용된 관리의 조복용 쓰개 ³⁵⁾ 로 양(梁)의 수에 따라 품위의 상하를 구별함.	중국 명대(明代) 양의 수를 달리한 쓰개로, 송대 진현관에서 유래되었고, 명대 홍무(洪武) 26년(1393)에 문무관의 관복에 사용됨. ³⁶⁾
사모 (한어)	『高麗史』卷第72 志 第26 輿服一 冠服	사모(紗帽)는 명의 홍무3년(1370)에 文武官員의 상복용으로 제도화된 烏紗帽인 것으로 모체가 등금계 이층을 이루면서 두 개의 날개를 좌우로 쫓은 형상 ³⁷⁾ 으로, 증가이후로는 모체가 높아지고 양각도 평직으로 넓어졌다가 말기에는 모체가 낮아지면서 양각의 길이도 짧아지고 굽어지는 등 형태가 변화. 상복, 사복, 조선후기에는 공복에도 사용 ³⁸⁾	명의 홍무3년(1370)에 文武官員의 상복용으로 제도화된 쓰개. ³⁹⁾
정자 (한어)	『高麗史』 공민왕 갑진 13년(1364)	직품에 따라 재료를 달리하여 모정에 장식. 조선후기 전립(戰笠)위에 정자로 직품을 표시. ⁴⁰⁾	중국에서는 명, 청대에 황제들의 쓰개 및 문무관의 품계에 따라 재료에 차등을 두어 사용. ⁴¹⁾
두건 (한어)	『高麗史』卷第72 志 第26 輿服一 冠服通制	관원의 상례시 ⁴²⁾ , 악공 ⁴³⁾ 및 歌童의 禮服에 사용.	머리를 싸는 건을 총칭 ⁴⁴⁾ . 『사물기원(事物紀原)』에는 예전에는 척포(尺布)로 머리를 감았고, 후세에 사(紗)라(羅)포(布)갈(葛)로 네모진 것을 봉합한 쓰개와 둥근형태의 쓰개를 지칭. ⁴⁵⁾
감도 (만주어)	『高麗史』卷第72 志 第26 輿服一 冠服	‘坎頭, 甘吐, 甘土, 甘套, 顯頭’ 등으로 표기. 의례 때에는 內冠으로, 평상시에는 外冠으로 사용된 남자들의 일반적인 쓰개로 형태, 재료, 용도에 따라 각각 ‘帽子顯頭’, ‘담감토’, ‘자리감토’가 있음. ⁴⁶⁾	小帽子로 기록. 명대(明代) 대표적인 일반 남자의 쓰개이고 쟁이 없이 모체가 六瓣, 八瓣, 圓錐形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절마다 소재를 달리하여 사용했던 것. ⁴⁷⁾
화 (한어)	『三國史記』卷33 雜志二 色服	발목이 긴 신으로 관복 ⁴⁸⁾ , 喪服 ⁴⁹⁾ , 通常禮服 ⁵⁰⁾ , 公私禮服 ⁵¹⁾ 에 사용.	발목이 긴 신으로 명대 羈臣服 중 公服, 內使, 侍儀舍人에게 사용되었고 ⁵²⁾ , 청대에는 재료와 형태가 달라짐.
조복 (한어)	『三國史記』卷十三 烏丸鮮卑 東夷傳 第三十 高句麗	나라의 대사, 경축, 元旦, 등지 빛 조식을 반포 할 때나 진포 할 때 입을 ⁵³⁾ 황제와 황후에 하례를 올릴 때, 왕세자와 문무관(文武官)이 대조회(大朝會) 때, 정조(正朝)와 동지(冬至)의 조회에 중궁(中宮)께 하례를 올릴 때 등 왕세자 이하 문무 군관이 착용 ⁵⁴⁾ , 양관에 적초의, 적초상, 백초중단, 폐술, 대대, 패옥, 수, 말, 혜, 홀로 구성.	사망(朔望)시조(視朝), 강조(降詔), 강향(降香), 외관(外官)조관(朝觀) 등 예식에 착용. ⁵⁵⁾
단령 (한어)	『高麗史節要』卷二十二 辛禡十三年 丁卯	둥근 깃의 포, 또는 관복. 조선시대에는 공복·상복·사복이 단령으로 의복 명칭으로 정착되고 시대에 따라 깃의 파임, 무의 형태 변화 등의 형태적 변화가 있음. ⁵⁶⁾	胡服에서 유래한 것으로, 둥근 깃이란 의미 ⁵⁷⁾ 에서 출발하여 중국당대 상복의 포가 되면서 관복의 하나로 그 의미가 확대됨 ⁵⁸⁾ .
단삼 (한어)	『동국이상국집』 권 6(1241)	홀로 된 의복, 속옷. ⁵⁹⁾	삼(衫)은 의(衣)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단삼은 홀로 된 옷을 의미함. ⁶⁰⁾
패옥 (한어)	『高麗史』卷第72 志 第26 輿服一 冠服	조복, 제복의 좌우에 늘어 차던 관복의 품목.	패옥은 조복의 좌우에 늘어 차던 관복의 품목 중에 하나. 명대에는 皇太子冠服과 諸王冠服의 품목. ⁶¹⁾
요대 (한어)	『三國史記』6卷 新羅本紀6 文武王 5年	허리에 띠는 대.	허리에 띠는 가죽의 대대(大帶). ⁶²⁾
품대 (한어)	『高麗史』卷第72 志 第26 輿服一 冠服	관리가 관복에 갖추어 띠는 띠. 조복·제복·상복과 공복에 띠며, 품계에 따라 재료와 모양이 다름. 조복·제복·상복에 1품은 서대, 정2품은 삼금대, 종2품은 소금대. 공복에는 정·종2품 모두 여지금대. 정3품은 조복·제복·상복에 삼금대를, 종3품은 소금대, 공복에 정3품은 여지금대, 종3품은 흑각대, 사복에는 정·종3품 모두 홍조야. 4품은 조복·제복·상복에 소은대(素銀帶)를 띠고, 공복에는 흑각대. 5~9품은 조복·제복·공복·상복에 흑각대. ⁶³⁾	명대 문무 제복, 조복, 공복, 상복에 품계에 따라 재료와 모양을 달리한 띠. 조복의 경우 1품은 옥대, 2품은 서대, 3품과 4품은 금대, 5·6·7품은 은대, 8·9품은 오각대를 사용하고, 공복에는 1품 옥대, 2품 서대, 3품과 4품은 금예시대, 이외는 오각대를 사용함. ⁶⁴⁾

〈표 8〉 우리나라와 중국의 '冠'종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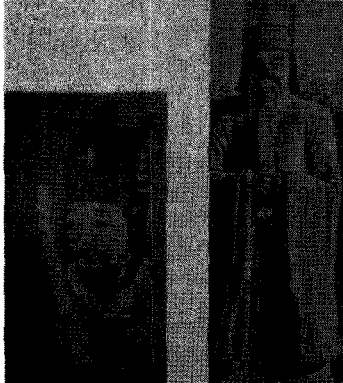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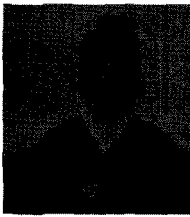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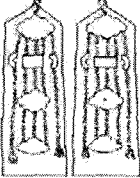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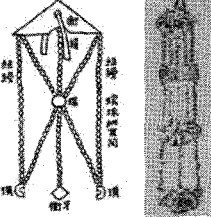
조선시대 '冠'의 종류		明·清代의 '冠'의 종류	
			
冠(王) 『朝鮮世宗實錄』, p.1322.	冠(文武官) 『朝鮮世宗實錄』, p.1322.	通天冠 『三才圖會』四, p. 118.	忠靜冠 『三才圖會』四, p. 125.
			
縑布冠 『四禮便覽』, p.1394	縑布冠 『四禮輯要』, p. 1395	冠 『三才圖會』四, p. 1512.	五積冠 『三才圖會』四, p. 1513.
			
遠遊冠 『景慕宮儀軌』, p.1376	進賢冠 『宗廟儀軌』, p. 1389	束發冠 『三才圖會』四, p. 126.	風冠 『三才圖會』四, p. 124.
			
齊衰冠 『春官通考』, p.1381.	烏冠 『樂學軌範』, p.1372.	吉服冠 『大清會典圖』, p. 126.	朝冠 『大清會典圖』, p. 126.

'양관, 사모, 복두, 단령, 조복, 패옥, 품디[대]'는 모두 남자의 관복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중국의 명대 혹은 그 이전에 유입된 복식 품목이다. 특히 이들 명칭들 중 양관, 패옥을 포함한 조복은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전반기까지 명으로부터 사여 받아 제도적으로 같았다.⁶⁷⁾ 그런데 〈표 9〉에서 조선후반기⁶⁸⁾와 명대⁶⁹⁾의 조복을 비교해 보면 양관, 홀, 패옥 등에서 형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여 받았던 복식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으로 이

해된다. 또한 경국대전 등 각종 법전에는 1품에서 9품까지 입었던 조복을 『경종실록』⁷⁰⁾에는 3품 이상은 조복, 이하는 흑단령, 『영조실록』⁷¹⁾에는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으로 하는 등 조선후기에는 비교적 낮은 품계에서는 조복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후기 조복은 착용자의 신분 에 따라 착용의 유무가 달라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관복의 쓰개였던 복두와 사모는 〈표 7〉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용도, 형태에서 변화가 있었다. 복두는 공

<표 9> 조선시대와 명대·청대의 '조복'

조선시대의 조복		명대·청대의 조복	
 <p>홍선 대원군이하응 영정</p>		 <p>明代の 조복</p>	
 <p>冠(文武官) 『世宗實錄』</p>	 <p>김우송초상(20세기초) 오량관 『위대한 얼굴』, p.111</p>	 <p>五梁</p> <p>『三才圖會』四, p. 1536.</p>	 <p>정정공 초상(1668년) 일량관 『위대한 얼굴』, p.17</p>
 <p>佩 『世宗實錄』</p>		 <p>宋·陳 『禮書』· 『三才圖會』四, p. 1531</p>	

복에 사용되었던 쓰개에서 점차 금제관복, 서리, 악공, 약사 등이 사용하는 쓰개로 용도가 변화되었고, 사모는 중기이후로는 모체가 높아지고 양각도 평직으로 넓어졌다가 말기에는 모체가 낮아지면서 양각의 길이도 짧아지고 굽어지는 등 시기별로 형태가 변화되고, 상복, 시복의 용도에서 조선후기에는 백관의 상복(喪服)에 공복과 함께 사용되는 등⁷²⁾ 용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단령은 『고려사절요』⁷³⁾에 의하면 백관의 관복은 1 품에서 9품까지 '紗帽 團領'이라는 기록에 통해 고려

시대 이미 '등근 깃'의 의미보다는 '등근 깃의 포, 또는 관복'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단령은 주로 관복의 포(袍)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표 10>⁷⁴⁾에서 보면 등근 깃의 의복을 단령 외에도 '삼(衫), 의(衣), 포(袍)'로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명사(明史)』⁷⁵⁾에서 보면 '단령'은 관복전체를 의미하기 보다는 '등근 깃'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표 10>의 『삼재도회』⁷⁶⁾에서 보면 '단령'의 명칭은 확인할 수 없는 반면 등근 깃의 의복을 '삼(衫), 오(襖), 의(衣)'로 표기하고 있

<표 10> 조선시대와 명대의 둥근 깃 형태의 의복 명칭

조선시대 - '단령(團領), 삼(衫), 의(衣), 포(袍)'	明代 - '삼(衫), 의(衣), 오(襖)'
 <p data-bbox="214 615 417 642">단령, 변수(1447-1524)</p> <p data-bbox="251 644 666 672">『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樂學軌範』</p> <p data-bbox="611 615 673 642">黑團領</p>	 <p data-bbox="934 615 1103 642">운문단 단령, 명대</p> <p data-bbox="911 644 1130 672">『위대한 얼굴』, p. 137.</p>
 <p data-bbox="225 868 286 895">綠團領</p> <p data-bbox="433 868 495 895">綠綉衫</p> <p data-bbox="642 868 703 895">綠綉衫</p> <p data-bbox="166 897 755 925">『進宴儀軌(高宗壬寅)』·『進宴儀軌(高宗壬寅)』·『景慕宮儀軌』</p>	 <p data-bbox="1094 752 1116 805">窄袖衫</p> <p data-bbox="911 897 1130 925">『三才圖會』四, p. 1543.</p>
 <p data-bbox="200 1138 282 1166">紅綠袖衣</p> <p data-bbox="440 1138 502 1166">紅袖衣</p> <p data-bbox="673 1138 714 1166">丹衣</p> <p data-bbox="175 1168 749 1195">『樂學軌範』·『進宴儀軌(高宗壬寅)』·『進宴儀軌(高宗壬寅)』</p>	 <p data-bbox="1094 1040 1116 1093">盤領衣</p> <p data-bbox="911 1168 1130 1195">『三才圖會』四, p. 1535.</p>
 <p data-bbox="330 1393 598 1421">紅袍 『進饌儀軌(純祖己丑)』</p>	 <p data-bbox="1085 1275 1107 1328">盤領衫裙襖</p> <p data-bbox="911 1393 1130 1421">『三才圖會』四, p. 1543.</p>

어 조선시대와 같이 관복을 지칭했던 '단령'의 의미 보다는 둥근 깃을 의미하는 명칭으로서의 사용례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조선시대 이전 문헌에 기록된 외래어 복식 명칭들은 한 가지 특정한 형태의 복식을 나타내기 보다는 의미의 폭이 넓은 명칭들인 '관, 화, 두건, 단삼, 요대' 등을 제외하고는 명칭과 함께 용도, 형태가 유입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명칭들은 유입된 이후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

면서 용도 형태가 부분적으로 변화되어 우리 복식으로 되었고, 특히 단령은 깃의 형태가 아닌 관복의 포(袍)로 의미가 확대되어 우리 복식으로 된 명칭임을 알 수 있었다.

2)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외래어 복식 명칭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외래어 복식 명칭은 한어 발음을 차용한 '옥잠, 관자, 운혜⁷⁷⁾, 원령, 호수, 창의,

〈표 11〉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외래어 명칭

명칭 (어원)	최초 문헌의 출처	조선시대의 의미	명·청시대의 의미
옥잠 (한어)	『현종실록』 6년8월16일(1665)	원자가 동계에 사용한 비녀. ⁷⁸⁾	면류관에 꽂은 비녀. ⁷⁹⁾
관자 (한어)	『연산군일기』 2권, 1년1월 26일(1495)	망건의 뒤쪽 양편에 달아 망건 끈을 걸어 매는 고리. 관원의 관자는 비슬의 품급에 따라 정하여 있음. 1품은 환옥(還玉), 정2품은 환금(還金), 종2품은 금으로, 정3품 당상관은 옥(玉)으로 함. 관자(貫子). ⁸⁰⁾	망건의 뒤쪽 양편에 달아 망건 끈을 걸어 매는 고리.
운혜[운혜] (한어)	『訓蒙字會』 (1527)	행등(즉 행전)이 안에 있어 신목이 긴 신으로 '雲鞋'로도 표기. 조선시대 '雲鞋'는 사대부 남자와 여자들의 신목이 없는 신.	鞵鞋. 履는 가죽으로 만들고, 흰 명주의 행등(즉 행전)이 안에 있어 신목이 긴 신. ⁸¹⁾
원령 (한어)	『태종실록』 6권 3년10월27일(1403)	둥근 갓. 둥근 갓의 포, 관복, 단령과 의미가 같음.	둥근 갓(예. 원령삼), 둥근 갓의 관복의 포. ⁸²⁾ 단령. ⁸³⁾
호수 (한어)	『세조실록』 6년 4월9일(1461)	배래가 수구 쪽에서부터 점점 넓어지다가 거드랑이 쪽으로 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소매 또는 그러한 소매를 가진 여성 상의의 명칭.	원대 '鶴袖襖兒' 라는 여성의 복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 ⁸⁴⁾ 호수를 가진 여자의 상의 명칭으로 추정.
도포 (한어)	『명종실록』 19년(1564)	사대부의 외출복, 제사복, 수의(壽衣) 등에 이용된 의복.	두가지 의미로 하나는 '道士, 僧侶所穿之袍.' 이고 다른 하나는 '士庶男子所穿便服.' 으로 원대와 명대 성행한 의복. ⁸⁵⁾
창의 (한어)	『역어유해』복식 (1690)	입진란 이후 왕과 사대부가 평소에 입던 옷으로 대창의라고도 하거나, 공복 안에 입던 옷으로 곧은 것에 소매가 넓고 무가 있고 트임이 있는 옷을 말하기도 함. ⁸⁶⁾	소매가 없고, 두껍게 제작하여 남자가 모두 입었는데, 부귀한 자들은 모피로도 만들어 입었던 의복. ⁸⁷⁾
둔자 (한어)	『역어유해』복식 (1690)	함경남도 안악·재령, 함경북도 서흥·수안의 '두루마기 ⁸⁸⁾ '를 의미하는 방언.	의의로 추정.
다로기 (만주어)	『한칭문감』靴襪類, 11a(1779경)	가죽으로 만든 신. 중국의 皮襪 ⁸⁹⁾ , 皮鞋 ⁹⁰⁾ 를 우리나라에서는 '다로기'의 한자표기인 '月朶其 ⁹¹⁾ ', '多路岐 ⁹²⁾ '로 표기.	우리말의 다로기에 해당되는 皮襪은 『宋史』 ⁹³⁾ 에 기록됨.
마흐래 (만주어)	『동문유해』복식, 55a(1748)	冠과 帽에 대응되는 우리말 ⁹⁴⁾ ⁹⁵⁾ .	몽고어 만주어의 '冠 ⁹⁶⁾ '을 지칭하는 명칭.
쿠리매 (만주어)	『동문유해』복식, 55a (1748)	여진어 만주어의 '외투'를 지칭하는 차용어 ⁹⁷⁾	청(淸)대부터 사용한 명칭으로 '短外衣'를 지칭 ⁹⁸⁾ .
털릭 (몽고어)	『세조실록』 2년5월4일(1457)	상의와 하상이 연결된 형태로 왕과 관직자의 용복으로 사용. ⁹⁹⁾ 시대에 따라 의와 裳의 비례, 갓, 소매, 고름, 고름바대, 단추, 어깨바대, 주름 등에 변화가 있음. ¹⁰⁰⁾	원대에서 명대에게까지 사용된 의복으로, 명대의 첩리는 '帖里'로 기록되었고, 宦官의 袍로, 상에 스란이 있고, 주름의 형태가 다름. ¹⁰¹⁾
더그레 (몽고어)	『번역노걸대』하50 앞(1517이전)	搭護 ¹⁰²⁾ , 搭忽, 搭胡의 우리말 언해 ¹⁰³⁾ . '齊肩掛·등지계·갓동옷·더그레·搭護·호의'가 동의어이며, 소매가 없는 옷. ¹⁰⁴⁾	원대에서 유래된 의복 명칭으로 ¹⁰⁵⁾ , 한자 '搭護'의 한글 명칭. 搭護는 '반비, 배심 ¹⁰⁶⁾ 과 동의어이고, 청대에는 가죽으로 만든 긴 옷과 반비삼을 지칭. ¹⁰⁷⁾

둔자, 도포'와 만주어발음을 차용한 '마흐래, 다로기, 쿠리매', 몽고어에서 유래한 '털릭, 더그레' 등 〈표 11〉과 같다. 〈표 11〉은 조선시대와 동시대에 해당되는 중국의 명대와 청대의 의미를 비교해 본 것으로서, 유입된 곳과 쓰임새가 다르거나 형태가 다른 명

칭들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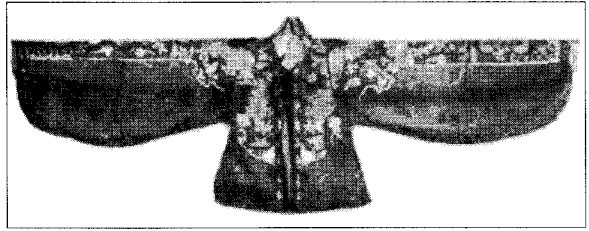
옥잠은 조선시대 원자가 동계에 사용한 것으로서 중국에서 면류관에 사용한 것과는 용도가 달랐으며, 형태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운혜[운혜]는 鞵鞋의 언해로, 〈표 11〉에서 보면 鞵鞋는 원대



<그림 3> 鞵鞋
『山海志奇圖』



<그림 4> 雲鞋
『樂學軌範(1493)』



<그림 5> 明代 女上衣

<표 12> 조선시대와 명대의 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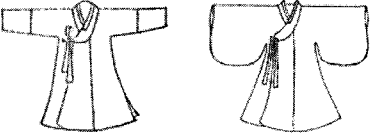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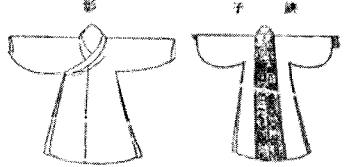
조선시대	명대
<p style="text-align: center;">圖 柁 道</p> <p style="text-align: center;">『사례집요』</p>	<p style="text-align: center;">道 袍 《北京民間風俗百圖》</p>

(元代)에 사용한 신으로 <그림 3>¹⁰⁶⁾과 같으며, 명대¹⁰⁹⁾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악학궤범』에 기록된 <그림 4>¹⁰⁰⁾의 ‘雲鞋’가 이와 같은 형태의 신이었는데, 점차 관원의 상복¹¹¹⁾, 사대부의 신¹¹²⁾, 여아¹¹³⁾, 또는 여자의 신¹¹⁴⁾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운혜는 명대 혹은 그 이전에 유입되어 한어음을 차용한 한자 ‘雲鞋’로 표기되면서 의미도 다르게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호수는 ‘鶴袖’의 한어 음으로, 『세조실록』6년 4월9일(을묘)의 기록에는 ‘대홍단 호수 소오자(大紅段好袖小襖子)【好袖即鶴袖, 虛其胸。】’라 하여 호수(好袖)와 학수(鶴袖)가 동일함이 확인된다. 호수(胡袖)는 『가례도감의궤』에 여자의 상의류로 표기되었는데¹¹⁵⁾, 호수와 동일한 의미인 ‘잇스매, 함스매’에 관해 김진구

(1999)¹¹⁶⁾는 ‘수구가 좁고 배래는 광박하며, 배래가 수구 쪽에서부터 점점 넓어지다가 겨드랑이 쪽으로 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소매’라고 하였다. <그림 5>¹¹⁷⁾는 중국 명대의 상의(上衣)유물인데, 그림의 설명에서 보면 ‘對襟, 博袖垂胡而袖端受手口小’라 하여 앞서 김진구(1999)가 제시한 잇스매, 함스매와 같은 유형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호수도 이러한 형태의 상의일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호수는 특정한 소매형태를 지칭하다가 점차 특정 소매를 가진 상의의 명칭으로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도포는 그 유래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으나 『고종실록』¹¹⁸⁾에 의하면 도사로부터 시작되어 중들에게 전파된 것이 우리나라에 이르러 정복(正服)으로 된

〈표 13〉 조선시대와 명대의 트임 있는 의복의 명칭

조선시대	명대
	
<p>金香挾袖 藍氍衣 『進宴儀軌(高宗壬寅)』 『進宴儀軌(高宗壬寅)』</p>	<p>衫 襖子 『三才圖會』四, p. 154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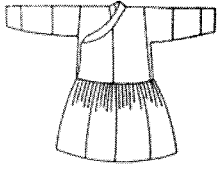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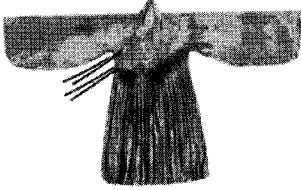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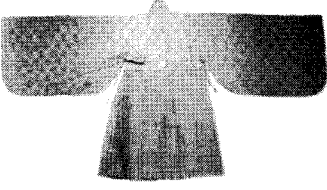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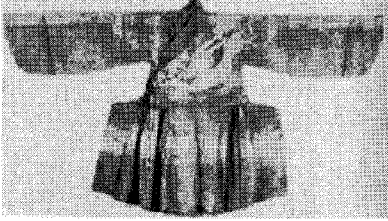
것이라 하여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포는 형태적으로는 직령에서 변화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¹¹⁹⁾, 도포 형태의 유물로 보아 고려 말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고 조선초기에는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점차 우리복식으로 정착되어 형태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²⁰⁾ 즉 중국 우리나라 모두 도복의 의미에서 와서 점차 일반인들에게 정착된 것으로 보이나 형태가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표 12〉는 중국¹²¹⁾과 우리나라¹²²⁾의 도포인데, 직령 깃과 넓은 소매는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창의를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와 중국에서 모두 사용한 명칭이나 용도,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표 13〉은 조선시대 ‘협수와 창의¹²³⁾’, 명대 ‘삼과 오자¹²⁴⁾’ 등 트임이 있는 의복인데, 이를 통해서도 창의는 명칭만 차용되어 조선시대 트임 있는 옷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둔즈[둔즈]’는 ‘頓子’, ‘皮純¹²⁵⁾’에 대응되는 우리말 언해이며, 한어 발음을 그대로 차용한 명칭인데, 중국 문헌에서는 그 형태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단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¹²⁶⁾에 보면 사신의 의복에 ‘屯子’가 있는데, 이는 한자의 음이 같은 ‘頓子’와 동일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豹皮屯子’가 앞서 제시한 문헌에 있고, ‘皮純’을 ‘둔자’라 언해한 것을 보면 둔자가 특히 가죽으로 만든 상의 혹은 외의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둔자는 조선시대에서 그 사용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현재 함경남북도의 두루마기에 대한 방언으로 남아 있어 조선시대에 명칭만 차용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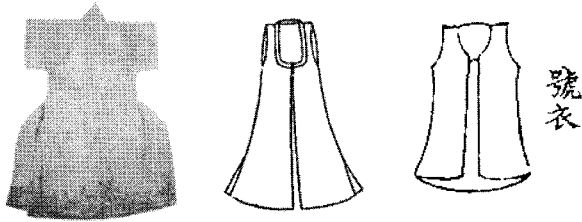
가죽신을 의미하는 만주어의 다로기[돌오기]는 ‘連脛履, 兀刺靴¹²⁷⁾, 皮襪, 鞞子鞋¹²⁸⁾’에 대응되는 우리말 표기이다. 『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에서 보면 중국의 皮襪¹²⁹⁾, 皮鞋¹³⁰⁾를 우리나라에서는 ‘다로기’의 음을 모방하여 ‘月吾其’라 하였고, 『북색기략(北塞記略)』에서는 공주(孔州)의 풍속 중에 가죽으로 종아리를 감싸는 형태의 버선을 우리나라에서 ‘多路岐’라고 하였다. 또한 중국문헌에서 다로기에 해당되는 ‘皮襪’의 기록은 『송사(宋史)』¹³¹⁾에 기록되어 있어 적어도 송(宋)대부터는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다로기는 북방지방에서 사용했던 가죽신으로 신목이 길었던 것으로 보이며, 언제 유입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조선시대에 사용되었고, 현재 육진방언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흐래는 마르래(레)로 함남지방의 방언¹³²⁾으로, 여진어 만주어의 ‘외투’를 지칭하는 쿠리매는 함경북도 북부의 방언으로 남아 있다.¹³³⁾ 둔자, 다로기, 마흐래, 쿠리매의 공통점은 북한 방언으로 남아 있다는 것으로, 이는 유입된 나라와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외국어가 국어에 동화되어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 각각의 명칭들의 형태가 유입된 곳과 완전히 동일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털릭[철릭]은 조선시대 남자들의 대표적인 외의류 명칭으로, 문헌에는 그 발음을 차용한 ‘帖裡, 帖裏, 天翼’으로 표기되었다. 〈표 14〉는 중국¹³⁴⁾과 우리나라의 털릭[철릭]¹³⁵⁾¹³⁶⁾의 형태로, 초기에는 유사했으나, 점차 깃, 소매의 형태, 특히 상의와 하의의 구성 비율 등이 변화되면서 조선시대 말까지 꾸준히 사용되었다. 더그레는 ‘搭護, 搭忽, 搭胡¹³⁷⁾’에 대응되는

<표 14> 조선시대와 명대의 철릭관련 유물 비교

조선시대	 <p>單帖裏 『樂學軌範』</p>	 <p>김확(1572-1633)의 철릭</p>	 <p>의원군(1661-1722)의 철릭</p>
명대	 <p>명대 철릭관련 유물(1515년)</p>		

<표 15> 조선시대와 명대 '더그레[搭護]'와 관련된 의복 비교

조선시대 '더그레'와 관련된 의복형태	명대 '半臂=搭護'
 <p>답호 紫的紗掛子 號衣</p> <p>변수(1447-1524) 『進饗儀軌(純祖己丑)』 『武藝圖譜通志(1794)』</p>	 <p>半臂</p> <p>『三才圖會(1607)』, p. 154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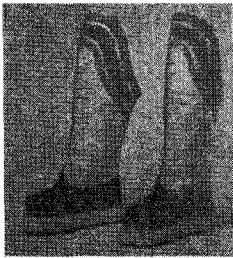
우리말 명칭이고, 등지개, 갓동옷, 답호, 호의, 전복, 패자, 패자와 동의 관계에 있는 명칭으로¹³⁸⁾, 이들의 공통점은 소매가 짧거나 없다는 것이다. 중국 명대 더그레에 해당되는 답호는 '搭護'로 기록되었는데, '搭護'는 원대에서 유래된 의복명칭으로¹³⁹⁾, 『삼재도회(三才圖會)¹⁴⁰⁾ 반지(半臂)의 기록에서 보면 '今俗名搭護文名背心'라 하여 반비, 배심과 동의어임을 알 수 있고, 청대 초기 『거역록(居易錄)¹⁴¹⁾에 의하면 가죽으로 만든 긴 옷과 반비삼(半臂衫)을 모두 지칭했던 명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와 명대, 청대의 더그레는 '搭護'로 표기되었고, 소매가 짧거나

없는 것이 공통점이며, 특히 조선시대 더그레와 관련된 의복은 변수의 답호¹⁴²⁾와 같이 소매가 짧은 형태, 패자(掛子), 호의(號衣) 등 소매가 없는 형태를 포괄한 명칭으로 추정된다.

이상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외래어 복식명칭들은 '옥잠, 창의' 등과 같이 명칭만 유입하여 사용한 경우, '관자, 다로기, 도포, 원령, 철릭' 등과 같이 명칭과 함께 복식의 실체도 유입되어 우리복식으로 된 경우, '운혜, 호수, 더그레'와 같이 명칭과 형태가 모두 유입된 후 그 의미가 확대된 경우, '둔자, 마호래, 쿠리메'와 같이 각각 '두루마기, 쓰개, 외의' 등 포괄

〈표 15〉 일시적으로 사용된 명칭

명칭 (어원)	최초 문헌의 출처	조선시대의 의미	명·청시대의 의미
조휘(화) (한어)	『연산군일기』 57권. 11년 4월 18일 (1505)	중국의 신, 긴 버선(襪)을 화(靴) 속에 붙인 것 ¹⁴³⁾ .	고대 화(靴)를 지칭. 당(唐)·송(宋)대부터 시작됨. 『明史』여복지에 의하면 양관, 원령 등과 함께 기록되 어 있어 관복에 사용된 신. 청대 조화를 보면 신목이 비단으로 되고 수를 놓기도 함. ¹⁴⁴⁾
비계 (한어)	(翻譯) 『老乞大』하)51a (1517년 이전)	우리 나라의 뚝지털릭에 해당되는 옷 ¹⁴⁵⁾ .	比甲. 원(元)대 남자의 의복으로馬上에서 입었던 의 복으로 ¹⁴⁶⁾ , 옷깃과 소매가 없고 후면이 전면보다 긴 형태 ¹⁴⁷⁾ . 명대 중엽에는 한족(漢族)여자가 比甲을 입 는 것이 사회의 기풍을 이루었고, 청대(清代) 마갑 (馬甲)의 기초가 됨. ¹⁴⁸⁾
널쿠 (만주어)	『同文類解』 55b	遮雨雲之衣 (『漢清文鑑』)	청대 소매가 없어 어깨에 걸치는 형태의 비나 눈을 막았던 옷으로 '囊衣, 撥襖, 斗篷'이라고도 함. ¹⁴⁹⁾



〈그림 6〉 朝靴(清代)



〈그림 7〉 斗蓬, 斗蓬을 입은 모습



〈그림 8〉 比甲

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서 현재 북한지역의 방언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분류된다.

2. 일시적으로 사용된 명칭

일시적으로 사용된 명칭은 명칭만 유입되고 형태는 유입되지 않은 복식으로 조선시대 사용례가 극히 적어 이후 점차 사라진 명칭으로 정의한다. 이에 해당되는 명칭은 〈표 15〉와 같이 '조휘(화)', '널쿠', '비계 옷'이 있다.

조휘는 〈표 15〉에 기록된 바와 같이 중국의 신을 설명하는 내용에 기록되었으나 실제 조선시대 사용된 예는 확인할 수 없어 명칭만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¹⁵⁰⁾은 청대 조화인데, 발목부분은 비단으로 제작되고 수를 놓았다. 널쿠는 '너러쿠'의 청음으

로 『漢清文鑑』¹⁵¹⁾에 보면 '널쿠 遮雨雲之衣'로 풀이되고 있어 비나 눈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 〈그림 7〉¹⁵²⁾¹⁵³⁾와 같은 형태의 의복으로 역학서에서만 확인되었다. 따라서 널쿠는 한자표제어 '斗蓬'에 대응되는 적절한 단어가 없어 만주어 발음을 차용하여 표기한 것으로 명칭만 존재했을 뿐 국어에 동화되어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계옷은 비가의 한어음에서 차용된 것으로 의복의 기원은 원에서부터 시작되어 명대 중엽에는 비갑(比甲)을 입는 것이 사회의 기풍을 이루었고, 청대(清代) 마갑(馬甲)의 기초가 된 옷으로 〈그림 8〉¹⁵¹⁾과 같은 형태의 옷이다. 이러한 형태의 의복은 조선시대에는 확인되지 않아서 명칭만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외국어학습서 중 어휘집을 대상으로 외래어를 분류하고, 이를 통시적 관점에서 특징을 분석하고자 문헌에 기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선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명칭과 일시적으로 사용된 명칭으로 분류하여 고찰 하였다.

먼저, 복식관련 외래어 명칭들은 한자어 한어에서 유래된 '관, 두건, 양관, 사모, 복두, 정자, 옥잠, 관자, 화, 조화, 운혜, 창의, 둔자, 호수, 단삼, 조복, 단령, 원령, 도포, 비계, 패옥, 품대, 요대'가 있고, 여진어, 만주어에서 유래된 '감토, 널쿠, 다로기, 쿠리매, 마흐래', 몽고어에서 유래된 '털릭, 더그레'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복식에 있어 한어를 사용한 중국과의 영향 관계가 깊었으며, 몽고와 만주족의 복식도 우리 복식과 함께 공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 복식은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래어 명칭의 품목은 의복관련 명칭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쓰개, 족의 순이었으며, '양관, 사모, 복두, 화, 조복, 단령, 원령, 패옥, 품대' 등 대부분이 관복과 관련된 남성들의 복식 품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래어 복식명칭들이 당시 주변국가와의 교류를 담당했던 남성들에 의해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대 외래어 복식 명칭들은 문헌의 기록을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사용된 명칭에는 조선시대 이전 문헌에 기록된 '관, 모자, 화, 두건, 감토, 양관, 사모, 복두, 단령, 조복, 패옥, 품대, 요대'와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옥잠, 관자, 운혜, 호수, 창의, 둔자, 단삼, 원령, 도포, 마흐래, 다로기, 쿠리매, 털릭, 더그레'가 있다. 조선시대 이전의 문헌에 기록된 명칭들은 대부분이 관복과 관련된 명칭으로 유입된 당시에는 형태도 유입된 곳과 같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조선시대에는 당시의 의복규정 하에 자체적인 용도, 형태 변화를 거쳐 조선말까지 우리복식에 동화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이후에 문헌에 기록된 명칭들 중 '옥잠, 창의'는 유입된 곳과 용도 또는 형태가 다른데, 특히 창의는 명칭만

유입되었거나 혹은 동일한 한자표기를 같이 사용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운혜, 호수, 더그레'는 명칭의 유입 후 그 의미가 확대된 경우로 운혜는 남자 혹은 여자의 신 명칭으로, 호수는 여자 상의의 명칭으로, 더그레는 소매가 없거나 짧은 형태의 의복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변화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둔자, 다로기, 마흐래, 쿠리매'는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 방언으로 남아 있어 적어도 명칭만은 우리복식에 동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관자, 도포, 원령, 털릭'은 복식의 기본 형태는 유지되었지만 용도, 재료, 의복의 경우 깃, 소매, 무의 변화, 상하의 비율 등에 변화를 보이면서 우리복식으로 되었다. 일시적으로 사용된 명칭은 명칭만 유입되고 형태는 유입되지 않은 명칭으로 '조화, 널쿠, 비계옷'이었고, 이들은 국어에 동화되지 못하고 사라진 명칭들이었다.

이상 조선시대 외래어 복식명칭에 관한 연구를 통해 30개의 외래어 명칭 중 3개의 명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속적으로 사용된 명칭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이전의 문헌에 기록된 외래어 명칭의 대부분이 관복과 관련된 명칭으로, 형태 용도가 변화되면서 조선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외래어 명칭들은 부분적인 변화를 거쳐 우리복식에 동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식사학은 물론 외래어를 연구하는 국어학 분야에 복식의 실제 즉 형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전 보다 외래어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부족으로 인하여 외래어 복식 명칭 개개에 대한 유입배경, 유입 후 변화 등의 자세한 사항을 제시하지 못 하였고, 외래어 복식명칭의 특징을 제시함에 있어 문헌 및 실물 자료의 부족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밝히며, 앞으로 이를 보완 수정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김진구 (1993). 한국복식어와 만주복식어의 비교 연구. *복식문화연구*, 1.
- 2) 심재기 (2000). *國語 語彙論 新講*, 태학사, pp. 111-212.

- 이기문 (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 남평현 (1972). 15世紀國語의 漢字語 借用攷. 『國文學論集』, 5-6合.
- 성백인 (1985). 몽고문자와 만주문자. 『국어생활』, 3.
- 성백인 (1994). 現存 司譯院 淸學書와 그 研究. 『알타이학보』, 4.
- 정제문 (1990). 『蒙語類解』와 『三學譯語』의 몽골어어휘에 대하여. 『愼翼晟 教授 停年退任紀念論文集』.
- 최범훈 (1985). 『方言集釋』研究. 羨鳥堂金炯基先生八耋紀念國語學論叢. 創學社.
- 3) 역어유해. 아세아문화사, pp. 87-95.
 - 4) 위의 책, pp. 308-311.
 - 5) 김철준 (2004). 『화어류초』의 어휘연구. 역락, pp. 321-324. 화어류초 원문 참조.
 - 6) 동문유해. 홍문각, pp. 115-122.
 - 7) 몽어유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86-92.
 - 8) 위의 책, pp. 243-244.
 - 9) 왜어유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태학사, pp. 99-102.
 - 10) 왜어유해(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태학사, pp. 311-313.
 - 11) 방언유석. 홍문각, pp. 129-13. 『방언집석』이라고도 함.
 - 12) 한청문감. 홍문각, pp. 1356-1366.
 - 13)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기준 외에도 국어학 연구를 참고하여 '외래어 명칭'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힌다.
 - 14) 역어유해, p. 87.
 - 15) 沈在箕 (1991). 近代國語의 語彙體系에 대하여-譯語類解의 分析을 中心으로. 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民音社, p. 787.
 - 16) 역어유해, p. 91.
 - 17) 郭忠求 (2000). 앞의 책, p. 354.
 - 18) 이기문 (1991). 한국어 속의 만주투구스제어 차용어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3, p. 29.
 - 19) 고려사 제72권. 지 제26, 여복, 관복, 관복에 관한 규정.
 - 20) 김은정, 강순제 (2007). 감투에 관한 연구. 『복식』, 57(6), pp. 117-118.
 - 21) 김은정, 강순제 (2007). 위의 책, pp. 113-116.
 - 22) 郭忠求 (2000). 六鎮方言의 現狀과 研究 課題. 『한국학논집』, 34, p. 354.
 - 23) '月'은 석독, '吾其'는 음독으로 표기한 것임.
 - 24) 『北塞記略』. 孔州風土記. '襪用牛革長沒脛 名曰多路岐不着鞋扉'.
 - 25) 이기문 (1991). 앞의 책, p. 134.
 - 26) 위의 책, p. 129.
 - 27) 세종실록 8년(1426) 9월 22일(임자).
 - 28) 이기문 (1991). 한어 속의 만주투구스제어 차용어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3, p. 32.
 - 29) 김은정 (2006). 어휘집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복식 명칭 분석. 가톨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2.
 - 30) 杜鈺洲의 (2000). 『中國衣經』. 상해문화출판사, p. 114.
 - 31) 周汎, 高春明 編著 (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p. 34.
 - 32) 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 pp. 922-923.
 - 33) 三才圖會 四, 成文出版社有限公司印行, p. 1535, 1543.
 - 34) 정신문화연구원 (1991). 앞의 책, pp. 922-923.
 - 35) 강순제 (1996). 관모연구(Ⅲ)-通天冠·遠遊冠·梁冠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pp. 60-63.
 - 36) 강순제 (1996). 위의 책, pp. 60-63.
 - 37) 강순제 (1998). 관모연구(Ⅳ)-王通과 世子の 翼善冠·紗帽 착용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8(1), p. 27.
 - 38)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 214.
 - 39) 강순제 (1998). 앞의 책, p. 27.
 - 40) 원저 정약용 역주 김종권 (1976). 『雅言覺非』. 일지사, p. 150.
 - 41) 周汎 ; 高春明 編著 (1996). 앞의 책, p. 92.
 - 42) 세종실록 28년3월27일(갑오).
 - 43) 『樂學軌範』, 9. 冠服圖說, "頭巾, 綠紬, 使臣東宮宴以下各宴, 禮曹倭·野人宴, 凡賜樂工及管絃盲人所着. 紫紬, 歌童禮服所着."
 - 44) 杜鈺洲의 (2000). 앞의 책, p. 134.
 - 45) 왜한삼재도회 3. 국학자료원, pp. 540-541.
 - 46) 김은정, 강순제 (2007). 감투에 관한 연구. 『복식』, 57(6), pp. 117-118.
 - 47) 周錕保 (1983). 『中國古代服飾史』. 中國又戈 居川出版社, p. 384.
 - 48) 태조실록 1년12월12일(무오).
 - 49) 세종실록 28년3월27일(갑오).
 - 50) 고종실록 31년12월16일(무오).
 - 51) 고종실록 32년4월 5일(병오).
 - 52) 三才圖會 四, p. 1535, 1542, 1544.
 - 53) 정신문화연구원 (1991). 앞의 책, 20, pp. 356-358.
 - 54) 조선왕조실록 참조.
 - 55) 이정옥외 3인 (2000). 『중국복식사』. 형설출판사, p. 209.
 - 56) 최은수 (2007).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 민속원, pp. 23-139.
 - 57) 周汎 ; 高春明 編著 (1996). 앞의 책, p. 246.
 - 58) 이정옥외 3인 (2000). 앞의 책, p. 113.
 - 59) 영조실록 1년4월27일. 순종실록 [부록]15년5월/13일(1922)
 - 60) 諸橋 轍次 著 (1985). 『大漢和辭典』, 10. 大修館書店, p. 181.
 - 61) 三才圖會 四, pp. 1530-1534.
 - 62) 諸橋 轍次 著 (1985). 『大漢和辭典』, 9. 大修館書店, p. 344.
 - 63) 경국대전. 예전 의장조.
 - 64) 이정옥외 3인 (2000). 『중국복식사』. 형설출판사, pp. 211-214.
 - 65) 박성훈 편 (2002). 『한국삼재도회』, 十八 衣飾. 시공사, 그림의 각 페이지 참조.
 - 66) 杜鈺洲의 (2000). 앞의 책, 각 페이지 참조.
 - 67) 『성종실록』 14년 8월22일(임오). '조복(朝服)·공상(工商)의 복(服)은 제도가 중국과 같고....'.
 - 68) 한국복식문화2000년 조직위원회 (2001). 『우리옷 이천년』. 미술문화, p. 63.
 - 69) 『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1986). 앞의 책, p. 398.
 - 70) 경종실록 원년 6월 13일(무신).

- 71) 영조실록 18년4월13일.
- 72) 종실록 즉위년(1720) 6월 13일(무신), 영조실록 즉위년(1724) 8월 30일(경자).
- 73) 高麗史節要 卷二十二 辛禡十三年 丁卯.
- 74) 박성훈 편 (2002). 앞의 책, 참조.
- 75) 新校本明史,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輿服二, 后妃冠服, 宮人冠服, “宮人冠服, 制與宋同. 紫色, 團領, 窄袖...”.
- 76) 三才圖會 四, p. 1535, 1543.
- 77) 김은정 (2006). 앞의 책, p. 114, “‘운혜[운허]’는 『訓蒙字會』에는 ‘鞵’, 『譯語類解』·『廣才物譜』에는 ‘鞵鞋’의 우리말 풀이로 기록되었다”.
- 78) 정조실록 21년4월21일, 24년 1월 13일
- 79) 新校本明史, 志, 卷六十六, 志第四十二 輿服二, 皇帝冕服, 皇帝冕服.
- 80) 한국역대제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지 (2002). 한국역대제도용어사전. (주)누리미디어.
- 81) 杜鈺洲 외 (2000). 中國衣經. 상해문화출판사, p.205.
- 82) 杜鈺洲 외 (2000). 앞의 책, p. 200, 明史. 輿服志 내용으로 추정.
- 83) 諸橋 轍次 著(1985). 大漢和辭典 3. 大修館書店, p. 98.
- 84) 황유선 (1999). 앞의 책, p. 52.
- 85) 周迅 : 高春明 編著 (1996). 앞의 책, p. 159.
- 86) 한국복식문화2000년 조직위원회 (2001). 앞의 책, p. 74
- 87) 周迅 : 高春明 編著 (1996). 앞의 책, p. 191. ‘質地厚實的披風. 无袖. 制爲双层, 中納綿絮. 富貴之家則用毛皮. 男女均可穿用, 著之以御寒冷.’.
- 88) 특전사령부 (1972). 북한 방언 및 부귀 군사 슬어. 특전사령부, p. 50.
- 89) 燕行錄選集 第四輯, p. 11, 鳳城潘陽之間或穿皮襪卽我國所稱月吾其者...
- 90) 燕行錄選集 第六輯, p. 90. ‘...皮鞋卽所謂月吾其也’.
- 91) ‘月’은 석독, ‘吾其’는 음독으로 표기한 것임.
- 92) 北塞記略. 孔州風土記. ‘襪用牛革長沒脛 名曰多路岐不着鞋屣’.
- 93) 二十五史. 新校本宋史. 列傳, 卷四百八十九, 列傳第二百四十八, 外國五, 三佛齊.
- 94) 同文類解, 服飾, 55a.
- 95) 蒙語類解, 服飾, p. 86.
- 96) 同文類解, 服飾, 55a.
- 97) 郭忠求 (2000). 六鎮方言의 現狀과 研究. 한국학논집, 34, p. 355.
- 98) 杜鈺洲 외 (2000). 앞의 책, p. 180, ‘掛 短外衣, 亦稱單衣, 可單可夾, 清代始稱掛, 至イ乃活用’.
- 99)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 218.
- 100) 금중숙 (2006). 조선시대 철릭의 형태 연구. 한국의 복식문화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 363.
- 101) 周汎·高春明 (1996). 앞의 책, p. 204.
- 102) 譯語類解, p. 90.
- 103) 서정원 (2002). 앞의 책, p. 37.
- 104) 김은정 (2006). 앞의 책, p. 85.
- 105) 주석보. 앞의 책 p. 402.
- 106) 三才圖會 四, p. 1546.
- 107) 주석보. 앞의 책, p. 402.
- 108) 周汎, 高春明 編著 (1996). 앞의 책, p. 302.
- 109) 周汎, 高春明 編著 (1996). 앞의 책, p. 302.
- 110) 樂學軌範 9, 轟祭服, “(轟祭·槍劍·弓矢·于戚舞工人所着). 鞋, 以白布爲襪, 下裏青綿布, 前後及兩邊, 以紅綿布 付之, 履用皮, 有纓.”
- 111) 새종실록 14년8월7일(계사), 28년3월27일(갑오).
- 112) 京都雜誌 卷之一. 風俗 巾服, “士大夫平居... 街上俱用笠子 穿唐鞋雲鞋...”.
- 113) 廣才物譜 卷之二 (1998), 흥문각, 4a.
- 114) 김영숙 편저(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p. 300.
- 115) 황유선 (1999). 조선시대 저고리류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6-52.
- 116) 김진구 (1999). 잇스매와 함스매의 명칭. 복식문화연구, 7(2), pp. 220-224.
- 117) 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1986).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下, p. 350.
- 118) 고종실록 25년10월28일(병오), ‘道袍亦自壬辰後始有之. 至宋而爲儒著道袍, 則始於道士而轉于僧徒. 至於我東而爲止服.’.
- 119) 이은주 (1999). 도포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5.
- 120) 위의 책, p. 25.
- 121) 周迅 : 高春明 編著 (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 : 上海辭書出版社, p. 159.
- 122) 四禮輯要, 四.
- 123) 박성훈 편 (2002). 앞의 책, p. 1324, p. 1327.
- 124) 三才圖會 四, p. 1547.
- 125) 同文類解, 服飾類 二22b-二23a.
- 126) 老稼齋燕行日記. 卷之一, 壬辰年 11月 25日, ‘天馬皮小裘豹皮屯子 亦有備來者 而屯子則去來所着 不過四五日’.
- 127) 광재물보, p. 174.
- 128) 物名攷. 국립중앙도서관소장, p. 43.
- 129) 燕行錄選集, 第四輯, p. 11.
- 130) 燕行錄選集, 第六輯, p. 90.
- 131) 新校本宋史. 列傳, 卷四百八十九, 列傳第二百四十八, 外國五, 三佛齊.
- 132) 특전사령부 (1972). 앞의 책, p. 50.
- 133) 郭忠求 (2000). 六鎮方言의 現狀과 研究. 한국학논집, 34, p. 355.
- 134) 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1986). 앞의 책, p. 349.
- 135) 경기도박물관 (2007). 김화 합장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p. 22.
- 136) 경기도박물관 (2007).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p. 25.
- 137) 廣才物譜 卷之二 (1998), p. 173.
- 138) 김은정 (2006). 앞의 책, p. 85.
- 139) 周錫保 (1983). 앞의 책, p.402.
- 140) 三才圖會 四, p. 1546.
- 141) 周錫保 (1983). 앞의 책, p. 402.
- 142) 국립민속박물관 (2000).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신아기획, p. 45.

- 143) 손경자, 김영숙(1982). 한국복식사자료선집 조선편 III. 교문사, p. 248.
- 144) 杜鈺洲 외 (2000). 앞의 책, p. 9, p. 200.
- 145) 老朴集覽 上 8앞. “比甲[衣之無袖對襟爲褻積者曰比甲 卽本國듬지털릭婦女亦依此制爲短襖着之亦曰比甲通稱搭護].”
- 146) 周錫保 (1983). 앞의 책 p. 375.
- 147) 위의 책, p. 375.
- 148) 華梅 著, 박성실·이수웅 譯 (1992). 앞의 책, p. 205.
- 149) 손경자 역 (1995). 中國服飾 5000년 下, 경춘사, p. 422.
- 150) 杜鈺洲 외 (2000). 앞의 책, p. 9.
- 151) 漢淸文鑑 (1998). 흥문각, 권11, 衣服 6a.
- 152) 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1986). 앞의 책, p. 410.
- 153) 李向平 主編 (2007). *Belle Painting of Ancient China*. China International Press, p. 115.
- 154) 杜鈺洲 외 (2000). 앞의 책, p. 186.